생각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

☞25면에서 계속

되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전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전생을 알 수 있다면 좀더 어리석음을 짓지 않을 것이고 깨달음도 빠를 것인데, 저희들은 어째서 깨닫기 전에는 전생을 모르는지요? 부딪치게 될 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 조금 아까도 전생인데요. 하하하…. 한 시간 전의 전생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생에 닥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닥쳐오죠. 그러니까 전생이다 후생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만 년 전이라도 오늘이 됩니다. 그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삼정례를 하다가도 바쁠 때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한데 합쳐서 일심으로 일정례를 해도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며 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생각에 일정례로 만 번의 절을 할 수가 있고, 삼정례로 삼만 번, 삼십만 번의 절을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내가 절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그냥 절을 하는 것이 진짜고, 내가 절을 하고 싶지도 않고 바쁜데 이걸 꼭 해야겠다 하고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삼십만 번을 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목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죠? 이거는 그냥 세상 우주를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촐나촐나 돌아가는 것을 염주로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백팔 번뇌를 그걸로 비유를 해 놨는데, 그걸 백팔 번뇌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목석이죠? 육체가 없으면 무효죠?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 생각 나는 것을 망상이라고만 밀어붙이겠습니까? 생각 생각 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봐야죠.

팥죽을 끓이는데, 익으려고 그러면 팥죽 방울이 수없이 올라오죠? 그럼 그거를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팥죽 방울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팥죽이 익으려고 팥죽 방울이 끓죠? 하하하…. 그러니까 팥죽 솥에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망상이 일어납니다.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입니다. 팥죽을 익히기 위해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이 그건 성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거기다가 일임해서 놔야죠.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면서 온통 백팔 배를 하고 천 배를 하고 아무리 몸뚱이로 그래 봤자 몸뚱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데,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공덕이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누가 묻기에 내가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아촉도 되셨다가 아미타도 되셨다가 관세음도 되셨다가 지장도 되셨다가, 칠성도 됐다가 산신도 됐다가 용신도 됐다가 지신도 됐다가 또는 문수도 됐다가 보현도 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다가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할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금방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허허허. 아니, 그렇게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가지각색의 이름이 그렇게 많고, 행하는 게 그렇게 많고, 가고 오는 게 그렇게 많아도 가고 옴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진주의 여러분이 이 도리를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저 부산에서나 울산에서나 마산에서나 또는 광주에서나 대구에서나 눈이 그냥 샛별같이 청정하게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아래로는 썩은 뿌리를 끊어 주고 새 뿌리를 나게 하는 것이요, 위로는 이파리와 가지를 싱싱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고마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낳아서 키워서 보낸 그 은혜도 이 도리를 공부하면 다 갚게 됩니다. 지수화풍의 은혜도 들이 아닌 까닭에, 전체가 들이 아닌 까닭에 갚았다 안 갚았다도 없이 그냥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무너지고 유전성이 무너지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모진 병고에 휘달리지도 않을 겁니다.

현명하게 사십시오. 아주 현명하게 말입니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해도 그건 아주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시도록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서 가르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서나 앉으나 일하나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며 참선입니다

질문자2(여) 스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맡기고 돌려서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이렇게 큰스님을 뵈었을 때 주인공에게 되돌려서 생각하는, 맡기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큰스님 이거 보세요. 깨닫는다는 말조차도, 이름조차도 생각하지 마세요. 깨닫는다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게 뒤따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또 내 마음 자체가 전부 용광로라고만 생각하세요. 재생돼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려면 용광로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놔야 스스로 녹아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바퀴요 용광로요 바로 자가발전소입니다. 자가발전소도 되고 용광로도 되고 바로 불바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치 말고 거기다 맡겨 놓고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난 깨달아야겠다!' 이러고 안간힘을 쓰면 더 깨달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그것이 없이 그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그 모두가 주인공에서 하는 것이니 마음으로 잘 굴려서 거기 맡겨 놓으세요. 이런 게 있죠. 하인을 뒀다 하더라도 너 이렇게 이렇게 심부름을 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 해 가지고 오지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아, 생각해 보세요, 글쎄!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해 주시오!' 해도 안 됩니다. 둘로 되기 때문에요. '네 몸뚱이 네가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야지 네 심부름을 하잖아?' 하든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어떤 용도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주인공, 이거를 해 주시오!' 이런다면 관세음보살을 바깥으로 찾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둘로 보지 말고 꼭 그렇게 하세요. 질문하실 것 또 없습니까?

질문자3(남) 큰스님 말씀에, 되지도 않는 질문도 하면 되는 법이 있다 해서 제가…. (대중 웃음)

큰스님 하하하…. 그래요!

질문자3(남) 저희 중생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 법인데, 제가 꼭 여쭈어 볼 것은, 깨달은 분은 실수가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것을 꼭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중 박수)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시공이 없이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한창 돌아갈 때는 보이지도 않죠?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죠?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딱 걸렸을 때에 내 마음이 걸린 거지 그 프로펠러가 걸린 게 아니죠? 그러니 실수를 해서 마음에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을 빨리 돌려서 '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돌아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딱 놨을 때에 제창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마음에 걸렸던 게 풀어지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꿔 놓는 것이 활궁공법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수레공법이라고 하죠. 또 가만히 있으면 부처다 하는 건 평등공법이죠. 하하하…. 이 모두를 여러분 자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먹어 보지를 못해서 맛도 모르고, 어떻게 해 먹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기복이 아니고, 모두 각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깨달아서, 즉 말하자면 어린애를 낳아서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고 자유스럽게 살아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와 같습니다. 나를 깨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갓 나온 어린애와 같은 거니까요. 두 번째 깨치는 거는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둘이 아니게 나투는 까닭을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르러 열반계로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4(여) 그럼 답답한 마음도 용광로에 놔야 됩니까?

큰스님 그렇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물리가 터지고 거기서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을 가다가도 엎드러지면 길을 딛고 일어나야지 딴 데다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답답한 걸 호소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나온 자리에다 되놓고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 아니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가고 오는지도 모르게 해결이 나는 겁니다. 물질로써 하는 게 아니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살려면 이 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자5(남) 멀리서 왔습니다. 오늘 꼭 한 가지를 여쭤 볼까 하고요. 놓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잘 놓는 건지요? 그리고 『금강경』도 읽고 싶고 『육조단경』도 읽고 싶고…, 지금 법어집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스님 법어집은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안 되는지요?

큰스님 책을 읽더라도 책이 선생님을 보지 않고 선생님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그 글자와 백지를 같이 보는 게 돼서 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책을 본다 하고 보고, 또는 책이 선생님을 본다면 그거는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걸어오실 때에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한 발 딛고 한 발 놓고 그러고 올라오셨지 걸머지고 오셨습니까? 네?

질문자5(남) 아니지요. 그러면 그걸 읽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말고 다 놓아라 이런 말입니까?

큰스님 놓고, 이 몸뚱이가 텔레비전이라면 텔레비전 속에 들어 있는 그 화면을 나오게 하는 근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하자는 대로 육체는 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나를 보게 하기도 하고 듣게 하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고 오게 하기도 하고, 싸우게도 하고 화나게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네가 다 하는 거다! 하고선 보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선 또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에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놓으시고 한번 체험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여기에서 일요일마다 비디오 법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차에 카세트테이프도 넣고 다니시면서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몸 떨어지면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떨어지기 전에 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대중 박수)

※위 법문은 1992년 11월 29일 진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방생 법회를 봉행하실 수 있도록 소형 괘불탱화를 조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시면 부처님의 무한공덕은 물론 신도님들의 신심을 더욱 깊게 하여 불교 포교에도 한량없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서 특별 할인혜택을 드리오니 동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장엄미 가득한 괘불탱화를 조성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 원하시면 크기 · 모양 등 원하는 대로 다양한 괘불을 제작해 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 · 中 · 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취급품목 단청, 탱화, 개금, 불상 및 건축, 시멘트법당, 천불, 오천불, 만불 등 각종 불사 전문

두리아기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태용 문화재 고 건축

최저예산으로 전통을 거르지 않고 책임시공, 관리,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木手 – 사람들은 절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 木壽 – 전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에 목숨을 불어 넣는 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집을 짓는 전 木壽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일 : 대웅전(3포, 5포, 7포등), 요사채, 범종각, 삼성각 등
작은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다면 정성을 다해 내집 처럼 짓겠습니다.
도 편 수 : 이 형 찬 합장 H · P 011-9515-5587 / 공장 055)852-5537 (팩스겸용)
경남 사천시 서포면 궁항리 840-4

제가 현금으로 시주를 할 수는 없지만 목수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22년간 해온 기술로
제가 직접일을 하기 때문에 불사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것은 작은 시주라 생각됩니다.